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25일 수요일 음 10월 11일 (3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대체로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0℃, 낮 최고기온은 14-16℃로 전망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 for the next 5 days.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for Jeju.

Table with 7-day weather outlook for Jeju.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weather information.

월드뉴스

94세 노인 들어올려 안면인식... 비난 봇물

중국서 동영상 퍼지며 논란 디지털 시대 노인 고충 커져



노인 끌어올려 안면인식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노인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요.” 중국이 급속히 디지털 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94세 노인마저 안면 인식기에 끌어 올려 인증을 받게 하자 중국 내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서 후베이 성의 94세 할머니가 사회 보장 카드 개통을 위해 은행을 찾다가 누군가에게 안아 올려져 힘겹게 안면인식 절차를 밟는 동영상과 사진이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노인은 당일 아들과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자택에서 300m 떨어진 은행 지점을 찾았다. 하지만 노인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은행의 안면 인식기에 얼굴을 갖다 댈 수 없었다. 결국, 부축하던 아들이 이 노인을 들어 올려 안면 인식기에 대면서 가까스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건강&생활



이방훈

의학박사·재활의학전문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가성통풍의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관절염으로 65세 전후에 잘 발생하고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2배 이상 잘 발생한다.

가성통풍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그 원인이 실제의 병과는 다른 질환을 말한다. 가성통풍이란 한마디로 '거짓통풍'이다. 이러한 거짓 질환으로 엉뚱한 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가성통풍의 정확한 병명은 갑상선 산업결정 축적질환으로 관절의 연골이나 관절 주위조직에 갑상선결정염이 쌓이면서 염증이 생기는 관절염 또는 관절주위염을 말한다.

갑상선결정염이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쌓이는지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 하지만, 유전적 영향, 갑상선이나 부갑상선의 질환으로 생길 수 있다. 혈중칼슘과다 환자, 심한 퇴행성관절염 환자, 관절 수술을 하거나 관절 부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에게

도 생기기 쉽다.

가성통풍으로 인한 관절염이 생기면 해당 부위가 아프고 빨갛게 붓고 뜨끈뜨끈하게 된다. 또한 몸에 열이 나고 근육통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 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관절 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관절 파괴가 진행되고 변형되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통풍은 술과 고기를 즐기는 사람에게 흔히 생기며, 40-50대 남성에게 주로 발생하는데, 가성통풍은 음식과 관계없이 노인에게 많이 생긴다. 통풍은 주로 엄지발가락에 오지만, 가성통풍은 무릎에 많이 온다. 물론 통풍과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이나 발목에도 오고, 그 외에 손목, 어깨, 팔꿈치, 척추, 골반 그리고 엉덩이 관절에도 생긴다.

방사선사진상 연골석회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으나, 연골 석회가 있

다고 모두 가성통풍으로 진단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연골석회화가 있어도 관절염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가성통풍이라 진단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확진을 위해서는 관절액이나 관절 주위조직에서 막대기 모양의 갑상선결정을 관찰해야만 가성통풍으로 확진할 수 있다.

관절액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사진에서 연골석회화가 보이면 진단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급성으로 통증이 발생된 경우에는 소염진통제를 복용하거나 혹은 관절 안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여 염증과 통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물리치료로 온열치료, 초음파치료, 전기간섭과 치료 등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불행하게도 갑상선결절을 제거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성화가 되지 않도록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열린마당

성인지 감수성 부재, 우리 인식부터 바꿔보자 화재예방에 최전선 11월



장한결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최근 각계 고위직의 성폭력 사건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 지도층에서 잇달아 터져 나오는 성추문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언론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한 점은 바로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 속 성 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해낼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수치상의 양성평등이 아니라 특정 성별에 대한 불평등을 지양하는 적극적 의미가 부각된다.

일례로 한 고위 공직자가 여성주간 기념식 행사 준비 과정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을 꽃으로 지칭하며 '꽃다발이 여기 있는데 따로 꽃을 준비할 필요

가 있냐'는 발언을 한 일이 재조명됐던 사례가 있다. 이는 듣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폭력적 인식, 즉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와 이를 용인하는 조직 문화에서 기인한다.

성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이전에는 관행으로 치부되거나 도덕적 비난에 그쳤던 일도 엄연한 범죄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최근 몇 년간 각계각층의 술한 '미투(Me Too)' 폭로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공론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으나, 내 일은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과 반역한 공감 능력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 '몇 초에 불과하다'는 시간 논리를 들이대거나 선거 및 당리 당론에 연연하는 정치 논리에 휘둘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한 번에 모든 사람의 인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행진에서부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수는 있을 것이다.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등을 통해 고정 전반에 성 평등 관점을 활용한다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별 편견을 조금씩이나마 제거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형석

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소방에서 이달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 혹은 사업장에서 난방기구를 꺼내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보온 중 난방기구에 쌓인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먼지를 제거하지 않고 전원을 켜면 때 스파크 현상으로 인해 화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조심만큼 중요한 예방법은 없다.

소방은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사회적 방화환경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주 동부소방서가 최근 2년간 화재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월 화재 건수가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11월 화재 예방에 노력한 결과가 별 편견을 조금씩이나마 제거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방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작년 제주도 내 화재 발생 요인 데이터를 보면 비닐하우스 화재가 많았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비닐이 불씨가 돼 바람을 타고 과수 지대가 밀집된 지역으로 날아가 착화 되는 순간 대형화재로 바뀔 수가 있다. 때문에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은 필수적이다. 낡고 오래된 각종 설비는 최신시설로 교체하고, 난방시설 주변에 화재가 될 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깨끗이 청소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에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는 것이다. 신속한 진화를 위해 소화기 및 소화용수를 비치하고 유사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끝으로 '상도주무'라는 사자성이 있다. 새는 폭풍우가 닥치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동지의 구멍을 막는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해 닦쳐올 재앙을 막음을 이르는 말이다. 이와 같은 사자성이처럼 화재가 닥치기 전 우리는 새가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 다가를 재앙을 대비하는 것처럼 월동기에 맞춰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Advertisement for Cheilsa (양복점 제일사) featuring a man in a suit, a price list, and a location map.

Advertisement for Boraflower (꽃보라) featuring various potted plants, a storefront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